

국어·영어 예상대로 쉬워…‘변별력’ 논란

■ 9월 모의평가 분석해보니

수학은 6월 모평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

산악여행 수칙 등 ‘안전교육’ 문항 다수

3일 시행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영어는 쉽게 출제돼 ‘물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비해 수학은 작년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2113개 고교와 290개 학원에서 시행된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4만8977명, 졸업생 8만2004명 등 총 63만981명이 응시했다.

평가원은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와 같이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따라,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은 출제범위에서 제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영어에서 산악여행 안전수칙 및 횡단보도 안전, 사회탐구에서 자연재해 및 생활안전, 직업탐구에서 트랙터 주행사고 및 가스누출 재해 사례 등의 문항이 출제됐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국어 A/B와 영어는 71.1%, 수학 A/B와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70.0%, 사회탐구는 70.5%다.

광주지역 고교와 입시학원들은 1교시 국어의 경우 A/B형 모두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국어 B형의 경우 만점자가 4%를 넘고, 1문제를 틀려도 2등급을 받을 정도로 쉬웠다”며 “국어 A형도 만점자가 3%가 넘고 1등급 컷이 98점에 달해 변별력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교시 수학 영역은 A/B형 모두 작년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쉽게 나왔지만, 지난 6월 평가 때보다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철민 광주 송덕고 교사는 “수학 A·B형 모두 평이하게 출제됐다”면서 “다만 B

형의 경우 21번 삼차함수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30번은 개수를 셀때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 영어는 이번에 작년 수능 B형보다는 쉽고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는 평가였지만, ‘쉬운 수능 영어’ 기조에 따라 여전히 만점자가 4%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변별력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만점자가 5.37%였던 6월 모의평가와는 다르게 길어진 지문, 고난도 어휘, 다소 까다로운 문장 구조 등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1등급 예상 컷을 97~98점으로 예상했다.

모의평가 결과는 26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을 마지막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교장 이재연) 3학년 수험생들이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판기 푼돈까지…

천원 지폐에 유리테이프 붙여 넣었다가 꺼내

500원짜리 등 거스름 돈 챙긴 60대 붙잡아

1000원짜리 지폐와 유리테이프를 이용해 자판기에 들어있던 푼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 전과 7범인 택시기사 전모(65)씨가 광산구 신창동의 한 자판기 앞에 선 것은 지난달 14일 새벽 1시30분께. 그의 손엔 특수 처리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전씨는 지폐를 넣고 커피를 한 잔 뽑은 뒤 잔돈을 거슬러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폐 투입구 앞에서 원가를 잡아당기는 가 싶더니 바로 전

투입했던 1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나왔다. 1000원짜리 지폐엔 유리테이프가 붙여 있었었던 것이다.

전씨는 택시를 몰다가 손님이 뜰거나

줄음이 밀려오는 새벽이면 한적한 자판기 앞에 차를 대고 미리 준비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커피가 당기는 날엔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커피 생각이 없는 날엔 지폐를 넣었다가 꺼낸 뒤 반환 버튼을 눌렀다. 자판기는 그럴 때마다 돈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여김없이 500원짜리 2개를 토해냈다.

물론 이처럼 어수룩한 방식이 모든 자판기에 통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씨는 최근 석 달 간 자신의 수법이 통한 5곳의 자판기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부수입 15만원을 챙겼지만 지난 2일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날 전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출 06:07 해진 18:56
달출 14:53 달진 00:29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낮동안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0/28	보성	18/28
목포	20/27	순천	21/29
여수	21/27	영광	20/27
나주	20/28	진도	20/27
완도	20/27	전주	21/27
군산	18/29	산하	20/26
강진	19/27	남원	19/27
해남	19/28	흑산도	20/26
장성	18/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파고(m) 0.5~1.0	파고(m) 0.5
남해	파고(m) 1.0~1.5	파고(m) 0.5~1.0
남해	파고(m) 0.5	파고(m) 0.5
서해	파고(m) 0.5~1.5	파고(m)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39	01:57
	21:48	14:15
여수	03:47	09:55
	17:19	23:39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6/30	19/29	20/30	20/29	19/28	20/27	20/26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10
	빨래	20

“강·절도 금요일을 조심하세요”

광주·전남 작년 최다 발생

광주·전남지역에서 강력·절도·폭력·지능범죄 등 각종 범죄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일요일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강력·폭력·절도·지능범죄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일요일이 가장 적었다.

광주에선 강력·지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요일은 월요일이었으며 절도와

폭력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다. 전남에선 일요일에 강력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폭력·지능범죄는 각각 월·금·수요일이었다.

시간대별로는 강력·폭력범죄는 밤 9시부터 밤 11시59분 사이에 가장 빈번했으며 절도는 오후 6시부터 밤 8시59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범죄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59분 사이에 잦았다. 연령대별로는 절도는 18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지능범죄는 41세~50세 이하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육부, 서남대 의예과 올 신입생 모집 금지

“실습교육 체계 등 미흡”

교육부는 남원의 서남대에 대해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적절한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6일부터 시작

되는 수시모집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서남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대는 지난 4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 실습 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71% 할인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